

금남로 사진관

재개발도 좋다지만...벚꽃길 이젠 못 걷나요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아파트는 봄이 되면 벚꽃 놀이를 즐기려는 행객들로 북적인다. 아파트 단지 조성 당시 함께 심은 40년 수령의 벚나무가 꽃 터널을 형성해 장관을 이룬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2014년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돼 내년 봄에는 벚꽃터널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광주도 재건축으로 인해 벚꽃길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서구 상록회관과 함께 광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벚꽃 길이었던 운암주공3단지도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돼 사라지게 됐다. 해마다 봄이 되면 수령 30년은 족히 넘었을 벚나무에서 연분홍 꽃을 피워내고 밤마실 나온 가족들과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사랑받았던 주공3단지. 가로등 아래로 보이는 벚꽃 야경은 황홀하기 그지없었다. 현재는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해 채 단지 내 수목들을 철거 중이다. 재건축과 개발도 중요하지만 꽃구경하라고 며칠만 개방해도 좋았을 것을, 하필 가장 화려하게 꽃이 피어야 할 봄날에 꽃도 피우기 전에 잘리고 버려진다는 게 안타깝기만 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봄맞이 광주천 정화 활동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나연) '사루데' 봉사단원들이 24일 광주천 일대에서 봄맞이 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호남대, 학교폭력 피해학생 교육기관 협약



호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센터장 김미례)는 최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 협약을 맺고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돌입했다. <호남대 제공>

금호타이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세이프박스 후원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는 지난 23일 '금호타이어와 함께하는 2021 세이프박스' 전달식을 열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에 방역물품을 후원했다. 세이프박스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으로 소외계층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마련하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8년부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용품을 후원하는 '핑크박스'(Pink Box) 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세이프박스 지원 활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세이프박스 지원사업 이외에도 희망의 공부방 개설 후원, 교통안전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힘쓰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광주시의사회, 동강대 장학금 지원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사진 오른쪽)는 지난 23일 홀리데이인광주 호텔에서 열린 '광주시의사회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동강대 제공>

조선대 의과대학, 시신기증자 합동 추모식 개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이 최근 의학 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 시신기증자와 유족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2021학년도 시신기증자 합동 추모식'을 개최했다. <조선대 제공>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5일 (음 2월 13일 壬申)
36년생 상태는 양호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48년생 결실이 알차다. 60년생 만남과 대화 속에서 깊은 해안을 가질 것이다. 72년생 주변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주견을 가져라. 84년생 완곡하게 유도해 주는 것이 무탈하다. 96년생 입장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3, 71
37년생 무난하게 통과하게 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49년생 내면의 실재가 충실함이 합당하다. 61년생 강풍이 몰아치니 비바람부터 피하고 보아야 한다. 73년생 전환점을 맞이할 갈림길에 서 있다. 85년생 합리적으로 운을 헤쳐 나간다면 부를 이루는 원천이 되어 준다. 97년생 원상회복의 기쁨이 크도다.
행운의 숫자 : 14, 92
38년생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우선이니라. 50년생 통상적으로만 임한다면 쉽게 효과를 보겠다. 62년생 지름길로 가려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다. 74년생 지근지처에 있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반드시 득이 있다. 86년생 사려 깊게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98년생 성사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행운의 숫자 : 67, 81
39년생 소문으로 일컬어지던 바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51년생 불완전한 원인 요소가 해소 될 수도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63년생 기초를 이루는 것은 유지해야 하니라. 75년생 주의를 다 하지 않으면 흉사가 벌어지겠다. 87년생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99년생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서 고집하는 구도가 역력하다.
행운의 숫자 : 26, 78
40년생 가뭄이 나타나는 전조를 무시한다면 당황하게 된다. 52년생 강력한 추진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이다. 64년생 서로 간에 유익한 방법이 따로 있으니 모색해 보자. 76년생 성사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88년생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00년생 원거리로부터 오는 행운이 알차겠다.
행운의 숫자 : 19, 57
41년생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찬스를 놓치게 된다. 53년생 전혀 상관없으니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조후이다. 65년생 가히 남독이 갈 것이다. 77년생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9년생 인간관계 속에서 허덕인다. 01년생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취하자.
행운의 숫자 : 37, 84
42년생 기대 했던 바 보다는 많지 아니한 이득이지만 짝짱하였다. 54년생 기회가 주어질 때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66년생 체계적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낫다. 78년생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 나라. 90년생 정확히 표적을 맞추는 형상이다. 02년생 순간적인 착각에서 기인한 변화의 시도가 문제다.
행운의 숫자 : 06, 61
43년생 크게 상관할 바는 아니니 패념치 말라. 55년생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취할 수도 없다. 67년생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함이 훨씬 낫을 것이다. 79년생 내버려 두면 불신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라. 91년생 합리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풍성한 성과를 거두리라. 03년생 영문도 모른 채 따라 가리라.
행운의 숫자 : 10, 53
32년생 큰 거둢을 잡고 대범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44년생 참신해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법이다. 56년생 처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68년생 극세가 마음과 감정을 해박히 할 시기이다. 80년생 현재의 방향으로만 진행한다면 훌륭한 결과가 있겠다. 92년생 당장 손발 필요까지는 없으니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된다.
행운의 숫자 : 01, 76
33년생 변화가 생기면서 다소 답답함을 느낄 수다. 45년생 좋은 소식을 전해 주려는 이가 보인다. 57년생 조용히 덮어 두는 것이 백 번 낫다. 69년생 애가 거다 기다릴 일이 있다. 81년생 관심을 표하라. 93년생 결과는 의외로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33, 87
34년생 결정을 속히 하되 실행은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46년생 조짐이 심상찮으니 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58년생 가상이 실제의 상황이다. 70년생 전반적인 점점을 해박히 할 시기이다. 82년생 외관에 치중하다보면 내실이 취약해진다. 94년생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1, 64
35년생 객관적인 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47년생 금금해 왔던 것에 대한 실마리를 찾게 된다. 59년생 충고에 따르는 것이 궁극적인 해답이니라. 71년생 당해 문제가 원할치 못하니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83년생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성공을 만들어 가는 것이 능률적임을 알라. 95년생 정확함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36, 98